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아나?

(빌2:19~30)

19.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21.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30.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아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아나?
몇 년 전에 국내의 대형마트가 50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통큰치킨'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됐었고, 소비자들로서는 집 근처 동네에 있는 전통적인 치킨 집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가격으로 아주 좋은 품질의 치킨을 구매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만족감 때문에 연일 마트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통큰치킨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사이에, 마트인근에 있는 이른바 그 전통적인 소규모의 동네 치킨집은 아주 그냥 된서리를 맞은 거예요.
하루 매출이 평소의 절반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인근 상인들이 거센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국민여론을 조성하게까지 되면서 그 사태를 의식한 정부가 개입하고 나서, 이 통큰치킨 프로젝트가 일주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갑론을박이 나오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이 과연 바른 것인가?
아니,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살 수 있는 소비자의 편익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강탈을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가 된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기존 상인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대변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누구를 위한 정부이냐? 정부가 행한 조치는 도대체 동네 상인들을 위한 거냐, 대다수의 소비자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참 어렵지요?
동네 전통적인 치킨집, 하여간 대형마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는 전통적인 소규모 상인들은 다 망해도 좋은 겁니까?
분명히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좋아요, 물건을 구매해서 쓰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인들은 다 죽여야 되느냐?
아! 참 이게 문제에요.
아마 동네 구멍가게 집도 치킨을 먹을 때는, 옆집에 있는 치킨을 시키지 않고, 대형마트에 가서 통큰치킨을 사다 먹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문제가 비단 요런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한 것에 대해서, 조선의 근대화를 위하여 자기네가 이바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야욕을 위한 것인가, 그들의 말에 의한 소위 미개한 조선민족을 위한 것이냐?
이거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본식민지가 조선의 근대화에 이바지했으므로 조선에 유익한 것이었다, 이런 식의 논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메시아적 사역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것이,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랬다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죽을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므로 누구를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결과를 보고 따질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일본이 식민지화시키지 않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근대화 됐겠지 그럼 지금까지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의한 조선의 그 면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아니지요, 결과만 보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일이냐, 아니냐는 그 구분하는 기준이 동기에 있는 거예요, 동기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마음에서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안 되고,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걸 위한 겁니다.
제일 먼저 마음에서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모든 행동은 그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좋아하고, 세 번째 좋아하는 그 모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그 두 번째 것을 좋아하고, 세 번째 것을 좋아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좋아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를 따질 때, 제일 먼저 서민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는 거고, 부자를 마음에 제일 먼저 두고 있으면 부자를 위한 정책이 되는 겁니다.
물론 결과는, 서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부자에게 더 유익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부자를 위한 것이었지만 서민에게 결과가 더 유익하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부자에게 유익이 돌아갔더라도, 제일 먼저 염두에 둔 게 서민이라면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겁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잘못 된 것이지요.
부자를 위한 건 아니었는데 부자에게 유익이 돌아간 거지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그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일까요? 목사님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절대로 둘 다를 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른 두 대상을 동시에 좋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과를 갖고 얘기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그랬어요, '나를 시기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좋다'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서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고 권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들이 시기심 때문에 전파하고 있는데, 그 동기는 잘못 됐다는 거지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디모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에바 브로디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디모데를 빌립보교회에 보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에 앞서서 에바 브로디도를 보낸다는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의 경우도 그렇고, 에바 브로디도의 경우도 그렇고, 두 사람을 어떻게 성격규정을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디모데를 보내려고 할 때, 바울이 로마교회 내에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빌립보교회로 보낼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에요.
왜냐 하면, 전부다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교회로 파송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21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30절에, '에바 브로디도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기 일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나를 위한 일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선교회 회장님 계시지요?
여선교회의 일은 자기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입니까?
그러면 좀 반대지점에 있는 것으로, 주부로서 가정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살림 사는 것은 자기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입니까?
교회라는 공간,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시장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은 다 자기 일이라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일과 자기 일의 분포율이 어때야 됩니까? 60% 대 40% 정도 되면 됩니까?
아니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5, 자기 일 5, 5:5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빌립보교회에 사람을 파송하고 싶은데 그 뜻을 밝혔을 때 기꺼이 그 바울의 뜻을 받아들여서, '아~ 내가 갈게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서운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이 영적인 의미에서 공사를 구분을 못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과 자기의 일이라고 말씀을 할 때에는, 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공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그리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을 만큼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보편타당한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자기 일과 그리스도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보편타당한 이 기준이.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일과 그리스도 일이 구분되어서 두 가지 일이 있다고 볼 때에, 도대체 두 가지 일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일로 할 수 있고, 자기 일이 또 돼버리는가?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자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사는 것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육체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그리스도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자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부가 가정에서 살림을 살아도 그리스도의 일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장님이 여선교회 일을 해도 그리스도의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잘 모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선교회 일을 해도 자기 일이 돼버리고, 목회를 열심히 해도 목사님의 자기 일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었지마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해도 자기 일이 될 수 있고, 직장이나 아니면 시장통에서 두부 장사를 해도 그리스도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알고 명확하게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눈곱만큼이라도 자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면 그건 불신앙의 증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뭐에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으로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내려와 자기 비하를 이루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자기 비하의 근거는 우리의 겸손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어제 본 거에요.
하나님과의 백년해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죽음으로써, 내 마음이 좋아할만한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죽음으로써,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비유적으로 말해서 깨어지지 않는 결혼생활을 함으로써, 육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늙어서 죽을 때까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백년해로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 하산이 아니라 낙하로서의 겸손을 하려면 우리 마음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땅에 대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야 겸손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해서 죽으므로 십자가 너머에 마음을 둠으로써, 백년해로가 가능했습니다.
이 앞의 이야기와 모순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선상에서 그리스도 일을 생각하자면, 그리스도 일의 기준이 뭐냐 하면, 내가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동안에, 십자가 이쪽에 육체가 남아 있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가있는 이유가 뭐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다는 것을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을 십자가 너머로 보내는 겁니다.
십자가 너머에만 하늘의 빛이 비추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마음에서 제일 먼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모~든 그 다음의 행동은 다 그것을 위한 행동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일 먼저 좋아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세상의 좋아할만한 대상들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는지 아시지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 봐야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길?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십자가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 죽음으로써.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 마음이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좋아하는 동안에만, 내 육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어요, 이 땅에 그 눈앞에 펼쳐지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죽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십자가 너머 쪽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빛의 터널이 있어요.
하늘과 공중과 땅이 있는데, 공중은 마귀가 지배하면서 하늘의 빛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암흑의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터널을 뚫었는데, 거꾸로 터널 안만 환한 거예요.
보통은, 터널 안이 어둡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들어 놓은 그 터널 안만 빛의 터널입니다.
나머지는 다 깜깜해요, 하늘의 빛이 막혔으니까.
그래서 그 곳에 가있게 되도록 만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렇게 마음이 그 빛의 터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빛의 터널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꾸로 이 세상을 내려다 봐요.

그러면 이상해요.
삼라만상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가득~차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신 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내가 움직이는데 마치 그 인형, 줄로 이어져서 사람이 줄이 매어져 있는 막대를 움직이면서 인형극을 할 때의 인형처럼 하나님께서 이 몸을 움직이고 계시고, 움직이게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떨 때?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빛의 터널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꾸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것은, 내 마음은 이 세상에서 얻을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라는 걸 인식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들에 피는 백합화에게도,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상하게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밥을 먹게 하시는 거고, 내가 직장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줄에 매어진 인형을 움직이는 것처럼, 직장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십자가를 넘어가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 돈이 딱 마음에 걸렸어요.
자식을 대할 때 돈 때문에 걱정이 생기면, 자식한테 '야~ 이놈의 자식아 시끄러'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다~ 돈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 공부 안 해?"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네가 공부를 해야 돈을 번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 돈을 위해서 하는 이게 바로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일은 결과적으로 마귀를 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다른 것에 붙어 있기를 원하니까.
전부 마귀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밥 먹는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일로서 살아가는 삶,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은 십자가 너머에 빛의 터널에 있습니다.
하늘의 빛이 계속 내려오는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가득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결혼도 그리스도의 일이고, 자식을 낳아도 그리스도의 일이고, 안 낳아도 그리스도의 일이고, 직장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일이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일이고, 두부장사를 해도 그리스도의 일이고, 모~든 게 그리스도의 일일 때, 인생의 한 땀 한 땀이 모두가 다 충만한 은혜로 내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일로서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거기서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이제, 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바 브로디도 얘기를 하는데, 병들었다가 에바 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후원금을 갖고 와서 바울을 섬기다가 그만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한 것은, 사도바울이 에바 브로디도의 병들어서 죽게 된, 죽을 병에 걸린 그 상태에 개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바울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이러면서.
근데 에바 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심으로 나에게 근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근심하고 있습니까? 개입해서 낫게 하면 되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바울이 볼 때는 자기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의 선교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에바 브로디도 역시 마음을 십자가 너머에 둔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에바 브로디도가 아픈 것은, 하나님과 에바 브로디도 둘 사이에서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병인지 사도바울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과 에바 브로디도가 이루어가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빌립보교인들이 에바 브로디도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을 하니까, 그것을 염려할 수는 있지만, 개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독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해가는 사람이니까.
바울을 섬겨도 바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밥 짓잖아요?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들어가 있으면서 밥을 지으면,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부 먹고 싶은 사람에게 두부 파는 두부 장수가 그 소비자를 위해서 두부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비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부를 먹이고 싶어 하시는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밥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일을, 지금 내 육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에요, 사장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겁니다, 마음이 십자가 너머 있을 경우에.
그러면 잘못되는 일도 없고 실패하는 일도 없는 거예요.
불통처럼 보여도 형통이고, 세상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느끼는 것도 형통이고, 오직 형통만 있을 뿐이고 오직 성공만 있을 뿐인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성공이고 형통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사도바울이.
에바 브로디도처럼 병이 들어도 형통이고 성공입니다.
뜻이 있으면 나을 것이고, 뜻이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리스도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일에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 없는 삶의 비결이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십자가 너머에 둠으로써, 하나님을 제일 먼저 좋아한다는 고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숨 쉬는 것까지 다 그리스도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제일 먼저 좋아함을 실천적으로 실행하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육체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되게 해 주심으로써, 실패도 없고 불통도 없고 낙담할 상황도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일로서만 인생을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